

월/요/광/장

안진



신정아씨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싶어했던 것, 언론이 보도를 통해 알려주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언론은 과열보도를 해오면서도 정작 문제의 핵심을 파헤친 것 같다.

초점이 빛나간 언론의 과열보도가 극에 달한 것은 지난달 13일자 문화일보에 실린 신씨 관련 기사였다. 이 기사는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두 장의 신씨 알몸사진과 함께 '성 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붙였다.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받거리 유희가에 뿌려지는 황색 '찌라시'도 아니고 명색이 정론지라고 주장하는 일간지가 기사를 통해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전신 앞뒷면의 단순한 알몸사진 2장을 성 로비와 동일시한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씨가 성 로비를 했다고 단정했다는 점이다.

이 사진은 과연 신씨의 사진인가의 진위 여부와 일간지로서 누드사진 게재가 적절한가의 문제를 떠나 사건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알몸사진과 로비를 연결시킨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문화일보 편집국

신정아씨 사건과 여성인권

장의 해명은 공색하기 짝이 없다. 그 일간지의 편집진이 생각하는 추상적 '국민'이란 누구이며 그들이 말하는 '알권리'란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부류의 보도가 주는 더 심각한 왜곡은 신씨라는 한 여성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적당한 젊음과 외모를 가진 전문분야의 여성들을 실력보다는 성을 자원으로 성공하려 한다는 식으로 전형화하고 비하한다는 점이다. 학력위조로 물의를 일으켜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사

람이 된 신씨의 경우 이처럼 몰아붙이기 가 더욱 쉬운 일일 것이다.

이 사건이 보여주어야 할 두 가지 본질은 학력위조를 권하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현실과 우리 사회에 만연된 권력형 비리이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했던 것은 신씨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변양규씨의 개인적 비리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더 큰 권력형 비리와 관련되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기관인 검찰에 바라는 점도 교수 임용이나 비엔날레 예술출감독 선결과 같은 과정에 얽혀 있는 권력

층의 비리를 밝히고 바로잡아 달라라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법원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그런 지적에 공감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미 신씨 사건을 권력형 비리나 권력층의 범죄를 보기보다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 변씨와 신씨의 개인적 비리사건으로 축소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구속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찰의 현재 모습이 지나친 오버액션으로 보이는 것은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실제적 진실이 권력형 비리에서 초점이 빛나기 때문이다.

비리 현장에도 남녀차별

권력과 부에 다가가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은 다양하다.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양한 수단은 동원하는 데에는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신씨 말고도 공식적인 게임의 룰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게임의 룰을 벗어난 남성들의 음지의 정치는 용인하면서도 여성에 대해서 유별나게 흥분하는 언론과 일부 네티즌들을 보며 비리의 현장에도 남녀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일 신씨가 남성이었다면 사건의 수사나 보도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수많은 남성 신씨를 생각하며 씁쓸해진다.

〈전남대 법대 교수·전 공신대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엑스포 D-50 부동산 집중 공략하라

여수가 유치를 신청한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객관적인 면에서 현재까지 여수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굉장한 실패의 교훈이기도 하다.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모로코는 지난달 각 회원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한 등 국왕이 진두지휘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도 바웬사 전 대통령을 앞세워 유럽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여수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 재계, 지자체 등은 빈틈 없는 민관협력체제를 갖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수 유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여수 엑스포는 부동산 공략에 달려 있다.

통합신당 경선위기 파국만은 막아야

통합민주당의 경선이 접입가경이다. 후보들이 연기된 경선을 오는 14일 한꺼번에 치르는 '원샷 경선'을 어렵게 수용하느라 다투던 선거인단 명의의 동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 통합신당이 좌초될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후보들은 경선 득표전은 접어둔 채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측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의 동맹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정동영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이해찬 후보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샷 경선'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후보간 공방은 이제 특정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이전 투구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원샷 경선'이 제대로 치러져 대선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판세 상 여수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2차 투표에 대비한 전략을 펼쳐야 세우야 한다. 이는 굉장한 실패의 교훈이기도 하다.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모로코는 지난달 각 회원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한 등 국왕이 진두지휘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도 바웬사 전 대통령을 앞세워 유럽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여수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 재계, 지자체 등은 빈틈 없는 민관협력체제를 갖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수 유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여수 엑스포는 부동산 공략에 달려 있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discussing the 1918 Franco-Prussian War and the role of the 'Kongpion' (Kongpioneu) in the conflict.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기

김화중



2007 남북정상회담에 여성분야를 대표하여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설레임과 동시에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49명의 특별수행원들은 각 분야별로 북측 대표들과 회담을 하는 임무도 주어져 있어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각박관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평양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환영하는 인파는 환영식장까지 이어져 꽃다발을 흔드는 얼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평양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같은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미묘하고 복잡한 느낌이 스쳤다.

평양 시내의 아파트들은 새로 페인트를 하여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잘 정돈된 거리에 밤이 되니 모든 가로등이 꽃 장식의 한 불을 밝혀, 노무현 대

통령이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진전 상황에 대해 간단한 소회의 말씀이 있었다. 아주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대통령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이십전심으로 오찬장을 감쌌다.

그런데 저녁 때 정상회담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밤에 아리랑 공연장에 온 노 대통령으로부터 정상회담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기뻐했다. 공연이 끝나고 밤 9시부터 남측이 북측에 답례하는 만찬이 있었지만 조금도 피로하지 않았다.

4일 노 대통령을 따라 자동차 공장과 남포 사해관문을 참관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환송 오찬에 참석했다. 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김 위원장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떠나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밤 9

둘째날 정상회담 남보에 긴장·피로 싹 풀려

림을 맞이하는 성의를 볼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평양의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고 난 오후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권양숙 영부인의 북측 여성최고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 배석하였다. 서로 자기 쪽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다. 처음의 만남이고 또한 실무보다는 의례가 앞설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3일은 개천절, 오전 10시부터 7개 분야로 나누어 북측 대표단과 분야별 회담을 가졌다. 여성분야는 북측 5명의 대표단과 남측 3명의 대표단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였다.

나는 그동안 남북여성계가 힘을 모아 일본위안부 문제 등 민족의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공동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올렸음을 회고하고, 모성보호와 영유아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여성들의 남북교류도 제안하였다.

민족적·정치적 사안과 같은 크고 무거운 주제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도 여성계의 상호협력에 확대되고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이에 대한 단초를 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제안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낮 12시에 육류관의 점심 자리에 노

사가 넘어서야 남측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다. 일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의 임무를 잘 마쳤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2박3일의 여정이 뿌듯하게 회상되었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10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기대 이상의 결과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큰 업적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시각차가 아직 너무 커 합의를 못 이뤄왔다.

이런 문제까지 풀어나가 위해서는 앞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의 정신으로 상호신뢰의 탑을 쌓는 데에 꾸준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남북의 양 정상에게 남북 국민 모두는 깊이 감사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아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나도 여성계의 대표로서 그 몫을 다 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전 보건복지부장관>

법조 칼럼

임은정



누구나 살아가며 솔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어느 경우라도 진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이를 올바른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렸을 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에 필자는 거짓말이 최악이라 생각해 왔고, 그런 이유로 굳이 정직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도 굳이 끝마쳐 이야기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았다.

대학시절,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

뎡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말이 좋아 변명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르랴. 결재권자의 사무실을 나오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만하였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고, 큰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이 없었던 내 평온한 삶에 대해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며, 심한 경우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실제 일어난 일로 둔갑시켜 말하기도 한다.

스스로 정직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요즘은 딱

거짓말

리아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고, 이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성경 구절을 읽고, 진로를 고민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상황에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돌을 던져야 한다면 던지겠다고 생각했다. 평생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자신은 없었으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최소한 "돌을 던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다짐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

검사로 임관한 후에도 거짓말에 대한 필자의 결벽증세는 행동안 유지되었다. 뻔한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어떻게든 그들을 단죄하고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재권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순간 당황하여 변명 아닌 변

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우리에게 삶은 그렇게 고단하다.

굳은 각오로 선택한 길이었건만, 난무하는 거짓과 근거 없는 불신에 지칠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필자 역시 그 책임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필자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몸가짐에서 상대방이 진실을 느끼지 못한 이상, 그 상대방에게 어찌 진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신문과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에서 이 사회에 누적인 불신과 실망을 본다. 연일 쏟아진 폭우에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거짓과 불신도 함께 슬러가 버렸으면...

먹구름을 밀어낸 가을 하늘이 더욱 아름답다 것처럼 폭우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과 이 사회에 희망과 신뢰가 넘쳐났으면 하는 꿈을 꾸다.

<광주지검 검사>

글곡 심한 도로, 표지판에 각도표시하면 사고예방 도움

국도나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급커브길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일률적으로 돼 있어 도로가 어느 정도 굽었는지 그 완급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지방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면 몰라도 특히나 초행길인 경우엔 "이 정도 속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다.

따라서 일반도로에도 철로 곡선표지판처럼 각도표시를 수칙로 나타냈으면 한다. 이럴 경우 운전자가 그 수치를 보고 미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 완급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방향변도 잦은포장공사로 노면이 높아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 2, 3년에 한번 꼴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 공사 때마다 약 5cm 이상 노면이 높아지면서 방호벽이 낮아져 높이가 고작 20~30cm에 불과한 곳도 많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방호벽에 대한 대책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